

보도시점 2025. 9. 10.(수) 09:00 배포 2025. 9. 10.(수) 09:00

취업자수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 고용률·경활률 8월 기준 역대 최고

- 제조·건설·농림어업 감소세 및 청년 고용 어려움은 지속
- AI 대전환·초혁신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청년 등 취업 지원 강화

① '25.8월 15세 이상 고용률은 63.3%로 전년대비 +0.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69.9%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참가율은 64.6%로 전년대비 +0.2%p 상승하였으며, 실업률은 2.0%로 전년대비 +0.1%p 상승하였다.

* 8월 고용지표('24→'25년, %): <고용률> 63.2 → **63.3** <경활률> 64.4 → **64.6** <실업률> 1.9 → **2.0**

- 연령별로는 30대(80.8%, +0.5%p) 및 40대(79.9%, +0.5%p)·60세 이상(47.9%, +1.1%p)에서 고용률이 상승하였고, 청년층(45.1%, △1.6%p)은 고용률이 하락했으며, 50대(77.5%, 0.0%p)는 보합세를 보였다.
- 15세 이상 경활률·고용률 및 15~64세 고용률은 8월 기준 역대 1위를 기록했으며, 1~8월 경활률(64.7%)·고용률(62.8%)·15~64세 고용률(69.7%)도 동기간 기준 역대 1위이다.

②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6만명 증가하여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를 이어갔으며, 1~8월 기준으로 17.8만명 증가하였다.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8)12.3 ('25.2)13.6 (3)19.3 (4)19.4 (5)24.5 (6)18.3 (7)17.1 **(8)16.6**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46.0→48.4만명)이 보건복지업(26.3→30.4만명)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되었으며, 최근 부진했던 숙박음식업(△7.1→0.0만명)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효과 등으로 전월 대비 개선되었다.
- 제조업(△7.8→△6.1만명)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었으나 감소폭은 축소되었고, 건설업(△9.2→△13.2만명)은 입주물량 감소 영향으로 감소폭이 확대되었다. 농림어업(△12.7→△13.8만명)은 강우 등 기상 영향으로 10만명대 감소하였다.

- 지위별로는 상용직(31.9→34.8만명)이 증가했고 임시직(1.6→△1.2만명)·일용직(△4.8→△6.7만명)은 감소하였다.

③ 청년은 취업자수 감소폭이 확대(△15.8→△21.9만)되고 전문과학·정보통신업 증가세 축소 등으로 고용률 하락폭이 확대되는 등 고용여건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이다.

- 다만, 청년 쉬었음 인구는 4달 연속 전년비 감소하였다.

* 청년 쉬었음(전년비, 만명): ('24.8)5.6 ('25.2)6.1 (3)5.2 (4)1.5 (5)△0.3 (6)△1.8 (7)△0.7 (8)△1.4

④ 정부는 AI 대전환 및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 소비심리 개선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9.22일 예정)을 차질없이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 및 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에 대한 지원에도 만전을 기한다.
-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8월에 발표한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및 SOC 신속 집행, 공사비 부담완화 등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 아울러, 청년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취업준비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구직·쉬었음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총괄>	경제구조개혁국 인력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장주성 (044-215-8530)
		담당자	사무관	이병준 (044-215-8532)
고용노동부 <공동>	고용정책실 미래고용분석과	책임자	과 장	천경기 (044-202-7260)
		담당자	사무관	신효빈 (044-202-7284)

1. '25.8월 고용동향 특징

□ 고용률 63.3% (월간 역대 1위), 경제활동참가율 64.6% (월간 역대 1위), 실업률 2.0% , 취업자수 +16.6만명 증가

○ 15세 이상 고용률 63.3%로 전년대비 상승(역대 1위, '82.7월~), 15~64세 고용률 69.9%로 +0.1%p 상승(역대 1위, '89.1월~)

* 고용률(15세+, %): ('24.3/4)63.3 (4/4)62.6 ('25.1/4)61.8 (2/4)63.5 [(6)63.6] (7)63.4 **(8)63.3**
고용률(15-64세, %): ('24.3/4)69.8 (4/4)69.7 ('25.1/4)69.0 (2/4)70.2 [(6)70.3] (7)70.2 **(8)69.9**

○ 경제활동참가율 64.6%로 +0.2%p 상승(역대 1위, '99.6월~)

* 경합률(15세+, %): ('24.3/4)64.7 (4/4)64.4 ('25.1/4)63.9 (2/4)65.4 [(6)65.4] (7)65.0 **(8)64.6**

○ 실업률은 2.0%로 +0.1%p 상승(^{8월 기준}역대 최저 2위, '99.6월~)

* 실업률(15세+, %): ('24.3/4)2.2 (4/4)2.8 ('25.1/4)3.4 (2/4)2.8 [(6)2.8] (7)2.4 **(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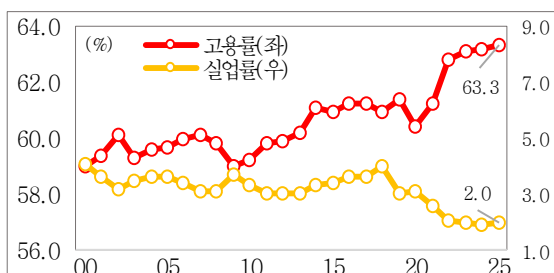
○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16.6만명 증가

* 취업자 증감(전년비, 만명): ('24.7)17.2 (8)12.3 ('24.下)9.9 ('25.1/4)15.5 (2/4)20.7 (7)17.1 **(8)1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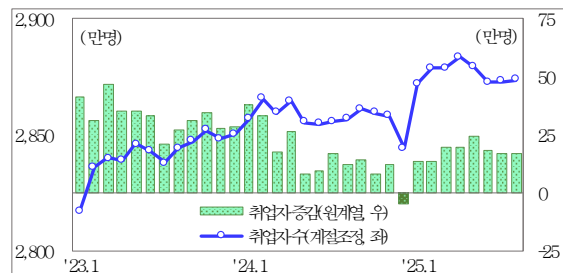
- 계절조정 취업자수는 +0.7만명 증가

* 계절조정 취업자 증감(전월비, 만명): ('24.3/4)△0.4 (4/4)△3.8 ('25.1/4)22.5 (2/4)1.9 (7)0.3 **(8)0.7**

15세 이상 고용률·실업률(원계열, 매년 8월)



전체 취업자수 및 증감(원계열, 계절조정, 전년비)



□ (산업) 서비스업 증가폭 확대, 제조업 감소폭 축소, 건설업·농림어업 감소폭 확대

○ (서비스) 54개월 연속 증가세, 최근 내수 회복세에 따라 연관 서비스업 (숙박음식, 협회단체,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폭 확대(+46.0 → +48.4만명)

* 서비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30.5 (4/4)26.8 ('25.1/4)43.9 (2/4)55.0 (7)46.0 **(8)48.4**

- 숙박음식(△7.1→0.0만), 협회단체·개인서비스(0.9→3.2만), 교육(3.7→4.8만)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따른 소비심리 영향으로 개선

- * 숙박음식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 2.9 (4/4) 2.1 ('25.1/4) 4.6 (2/4)△3.5 (7)△7.1 **(8) 0.0**
- 협회단체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0.3 (4/4) 1.3 ('25.1/4) 2.4 (2/4) 2.3 (7) 0.9 **(8) 3.2**
- 교육서비스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 0.8 (4/4) 8.5 ('25.1/4) 4.2 (2/4) 7.0 (7) 3.7 **(8) 4.8**
- * CSI(장기평균=100): ('24.12)88.2 ('25.1)91.2 (2)95.2 (3)93.4 (4)93.8 (5)101.8 (6)108.7 (7)110.8 **(8)111.4**

- 정보통신(1.6→△1.6만)·금융보험(3.8→3.2만)·전문과학(9.1→3.1만) 등은 '24.3/4분기 이후 증가폭 확대에 따른 기저 등으로 증가세 조정

- * 정보통신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6.4 (3/4) 9.6 (4/4) 6.4 ('25.1/4) 6.9 (2/4)4.7 (7) 1.6 **(8)△1.6**
- * 금융보험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1.3 (3/4) 2.8 (4/4) 2.7 ('25.1/4) 4.2 (2/4) 6.4 (7) 3.8 **(8)3.2**
- * 전문과학 취업자(전년비, 만명): ('24.2/4)2.7 (3/4) 7.1 (4/4) 7.8 ('25.1/4) 7.2 (2/4)11.1 (7) 9.1 **(8)3.1**

- 보건복지(+30.4만)는 돌봄수요 증가 및 노인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사업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폭 확대

- * 보건복지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8.5 (4/4)6.9 ('25.1/4) 17.4 (2/4)22.2 (7)26.3 **(8)30.4**
- 공공행정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3.6 (4/4)3.4 ('25.1/4) 5.3 (2/4) 3.3 (7)△0.5 **(8) 0.2**

○ **(제조)** 관세협상 타결 후 대외리스크 완화에 따른 기업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내수경기 회복 흐름에 따라 감소폭 축소

- * 제조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3.2 (4/4)△7.5 ('25.1/4)△8.1 (2/4)△9.1 [(6)△8.3] (7)△7.8 **(8)△6.1**
- * 일평균 수출(전년비, %): ('24)8.1 ('25.2)△6.4 (3)5.1 (4)△0.8 (5)1.0 (6)6.9 (7)5.8 **(8)5.8**
- * 제조업 BSI 전망(전년비증감): ('25.7)△2.0 (8)△3.6 (9)△1.9 [업황전망: ^{8월}△6→^{9월}△2]

○ **(건설)** 건설수주 등 선행지표 흐름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나,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전월 대비 감소폭 확대(△9.2→△13.8만명)

- * 건설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8.8 (4/4)△11.5 ('25.1/4)△17.4 (2/4)△11.8 [(6)△9.7] (7)△9.2 **(8)△13.8**
- * 건설수주(전년비, %): ('23.1/4)△14.5 (2/4)△31.2 (3/4)△43.2 (4/4)23.2 ('24.1/4)△10.4 (2/4)20.7 (3/4)26.8 (4/4)9.7

○ **(농림)** 조사기간 강우 등 기상 영향 등으로 감소세 지속(△12.7→△13.8만명)

- * 농림어업 취업자(전년비, 만명): ('24.3/4)△3.6 (4/4)△2.5 ('25.1/4)△3.0 (2/4)△13.7 [(6)△14.1] (7)△12.7 **(8)△13.8**

□ **(지위·연령) 상용직 비중 57.4%(+0.8%p), 3~40대 · 고령층 고용률 상승**

○ **(지위)** 상용직 증가폭 확대(+34.8만명), 상용직 비중 역대 최고

- * 상용직 비중(8월, %): ('00)29.8 ('05)34.8 ('10)42.3 ('15)48.5 ('20)53.8 ('24)56.6 **(25)57.4**
- 임금근로자 증감(7~8월, 전년비, 만명): <상용>31.9→**34.8** <임시>1.6→**△1.2** <일용>△4.8→**△6.7**

- 비임금근로자는 자영업자(고용有·고용無) ·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감소

- * 비임금 증감(전년비, 7~8월, 만명): <고용有> △2.5→**△0.5** <고용無> △4.1→**△6.5** <무급> △5.1→**△3.3**

- (연령) 30대·40대·고령층 고용률 상승, 50대는 보합, 청년층은 하락

	전체	청년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인구(전년비, 만명)	+20.3	△19.1	+7.6	△14.0	△4.8	+50.6
취업자수(전년비, 만명)	+16.6	△21.9	+9.6	△7.3	△3.8	+40.1
고용률(% , %p)	63.3 (+0.1)	45.1 (△1.6)	80.8 (+0.5)	79.9 (+0.5)	77.5 (0.0)	47.9 (+1.1)

- 청년층 고용률(45.1%, △1.6%p) 하락, 실업률(4.9%, 0.8%p) 상승

(%, %p)		'24년	4/4	'25.1Q	2Q	6월	7월	8월
고용률	청년	46.1 (△0.4)	45.3 (△0.9)	44.5 (△1.5)	45.7 (△0.9)	45.6 (△1.0)	45.8 (△0.7)	45.1 (△1.6)
	20초	45.1 (△0.6)	43.9 (△1.8)	42.7 (△2.1)	44.5 (△1.5)	44.7 (△1.3)	45.8 (△0.2)	44.2 (△1.7)
	20後	72.5 (+0.2)	72.2 (△0.4)	71.2 (△1.4)	72.5 (△0.2)	72.4 (△0.3)	72.0 (△0.4)	71.7 (△1.3)
실업률	청년	5.9 (0.0)	5.6 (+0.3)	6.8 (+0.4)	6.7 (+0.1)	6.1 (△0.1)	5.5 (0.0)	4.9 (+0.8)
	20초	6.3 (+0.5)	5.8 (+0.8)	8.1 (+0.7)	7.5 (+0.3)	6.9 (+0.8)	5.8 (+0.4)	5.3 (+1.1)
	20後	5.6 (△0.3)	5.6 (+0.2)	6.3 (+0.6)	6.4 (+0.2)	5.7 (△0.5)	5.4 (△0.1)	4.8 (+0.9)

- 청년층 쉬었음(44.6만명, △1.4만명)은 4개월 연속 감소

* 청년 쉬었음(전년비, 만명): ('24.1/4)△3.8 (2/4)1.3 (3/4)5.5 (4/4)5.3 ('25.1/4)4.8 (2/4)△0.2 (7)△0.7 (8)△1.4

◇ 일자리 어려움 겪는 '실업자+취업준비+쉬었음' 비중(8월 13.1%, 103.7만명)은 '24년보다 상승(+0.5%p, +1.8만명)했으나, 예년('20~'24년 평균 13.7%)보다 낮은 수준

청년층 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실업자 비중(8월 기준, %)

(8월 기준, 만명, %)		최근 5년 평균 (‘20~‘24)	‘20	‘21	‘22	‘23	‘24	‘25
합계 (A+B+C)	수(인구내비중)	117.4 (13.7)	138.0 (15.5)	128.4 (14.7)	115.2 (13.5)	103.5 (12.4)	101.9 (12.6)	103.7 (13.1)
실업자 (A)	수(인구내비중)	22.7 (2.6)	31.6 (3.6)	24.3 (2.8)	22.9 (2.7)	18.5 (2.2)	16.2 (2.0)	18.4 (2.3)
취준생 (B)	수(인구내비중)	51.5 (6.0)	59.7 (6.7)	59.6 (6.8)	54.1 (6.3)	44.6 (5.3)	39.7 (4.9)	40.7 (5.1)
쉬었음 (C)	수(인구내비중)	43.2 (5.1)	46.7 (5.3)	44.5 (5.1)	38.2 (4.5)	40.4 (4.8)	46.0 (5.7)	44.6 (5.6)

* 최근의 청년층 쉬었음 증가추세는 수시·경력직 채용 증가로 구직·이전직 과정에서 '취업준비·실업 응답비율'이 감소하고, 일시적 쉬었음 편입이 증가하는 데에 일부 기인한 측면

- 30대는 인구증가 대비 취업자수 큰 폭 증가하며 고용률 상승, 40대는 인구감소 비해 취업자수 소폭 감소하며 고용률 상승

* 3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3/4)1.2 (4/4)0.8 ('25.1/4)1.0 (2/4)0.9 [(6)0.8] (7)0.5 **80.5 [80.8%]**
4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3/4)0.6 (4/4)0.4 ('25.1/4)0.7 (2/4)0.9 [(6)0.8] (7)0.8 **80.5 [79.9%]**

- 50대는 인구감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취업자수 감소하며 고용률 보합, 60세 이상은 고령층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으로 고용률 상승 지속

* 50대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3/4)△0.5 (4/4)△0.2 ('25.1/4)△0.2 (2/4)△0.2 [(6)△0.2] (7)△0.2 **80.0 [77.5%]**
60세+ 고용률 증감(전년비, %p): ('24.3/4) 0.3 (4/4) 0.2 ('25.1/4) 0.9 (2/4)0.8 [(6) 0.7] (7)0.7 **81.1 [47.9%]**

2. 평가 및 대응

□ **취업자수가 8개월 연속 두자릿수 증가하며 경활률·고용률 역대 최고**
다만, 제조·건설업 부진 흐름 및 청년 고용 어려움 지속

- '24.5월 이후 3개월 연속 취업자수 증가폭이 축소되었으나, 1~8월 취업자수는 17.8만명 증가하며 금년 전망치(17만명)를 상회
- 제조업은 2개월 연속 감소폭 축소, 반면 건설업은 감소폭 확대
 - 제조업은 관세협상 타결(7.17일)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완화 및 경기 부진 흐름 반전에 따른 소비·기업심리 개선으로 감소폭 축소
 - 건설업은 하반기 입주물량 감소 등으로 감소폭 확대
- 서비스업은 보건복지·숙박음식업 중심으로 증가폭이 확대
 - 상반기 내수부진 여파로 최근 부진했던 숙박음식업 등은 민생회복 소비쿠폰(7.21일~) 지급 등에 따른 소비심리 회복으로 개선
- 청년은 쉬었음 감소(4개월 연속, △1.4만) 등 긍정적 요인도 있으나, 16개월 연속 고용률이 하락하며 부진 지속

□ **AI 대전환·초혁신경제 추진 및 내수 활성화·대외리스크 대응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여력 강화, 구직·쉬었음 청년 고용여건 개선 노력 확대

-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 등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핵심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 소비심리 개선흐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질없이 지급(9.22일~)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마련
- 관세 영향 최소화를 위해 피해기업 대상 정책자금 등 지원을 강화하고, 산업·고용위기 선제 대응지역 대상 지원에도 만전
- 건설경기 보완을 위해 지방 부동산 수요 보완 및 SOC 신속집행, 공사비 부담 완화 등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 차질없이 추진
- 청년 AI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취업준비 지원을 강화하고, 구직·쉬었음 청년 대상 고용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고용여건 개선 노력 강화